

• OVI - 3

○ 전치부 결손 증례에서 pontic 부위의 심미적 처리 ○

김규진*, 정용진, 한중석 이화의대 치과학교실 보철과

일반적으로 전치부 결손의 수복은 적절한 기능성과 청소의 용이성 외에도 높은 심미성을 필요로 한다. 수복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보철, conventional FPD, resin bonded FPD 등이 있으며, 이들은 최근 lab. tech.과 도재의 심미성 향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이중에서 RBFPD는 치아 삭제에 대한 생물학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치아 상실로 인한 골과 연조직의 변화로 인해, 치아 상실 부위는 자연치가 있는 주변조직과 다른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이므로, 보철치료시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치조제 결손이 심한 부위에서는 graft material을 이용한 외과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만, 많은 임상 증례에서 pontic 부위의 심미적인 고려만으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증례에서는 교정치료 후의 결손치에 대한 RBFPD case를 중심으로, 인접치 뿐만 아니라 주위의 연조직과도 조화를 이루는 pontic 부위의 심미적 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